

통권 제 254호

강남. 라 00943

2568
2024

12

여시아문
무엇을 가리켜
더러움이라고 합니까?




경전에서 찾은 지혜
윤회는 지속되는 것



생각의 열매
수가 박타 씨이야기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불교총지중

종조법설집

제 2장 수행편 P.123

교우 交友

신의 信義로서 벗을 사귀고
어진 사람을 질투하지 말며,
강한 자를 겁 없이 제어하고
약한 자에게 자비하여 침해하지 말라.



불교 이야기 _09
밀교와 관음신앙
_② 관음의 기원
_ 원당 정사



마음챙김 메커니즘 _17
부동심 不動心
- 흔들리지 않은 마음 _ 임진수



동행 _62
지족자부 知足者富
- 탁상달

- 04 여시아문
- 09 불교 이야기
- 12 경전에서 찾은 지혜
- 14 지장 스님의 향유
- 17 마음챙김 메커니즘
- 22 절기 이야기
- 24 문화유산 해설
- 28 고전 속으로
- 32 산책
- 34 살다보면
- 40 지혜의 뜨락
- 44 담마빠다
- 46 십선성취
- 50 슈베르트 따라잡기
- 53 평상심시도
- 59 생각의 열매
- 62 동행
- 65 마지막 공부
- 68 서원당 안의 불교
- 70 금쪽상담소
- 72 나만의 빛 모두의 빛
- 76 가로 세로 만다라세상
- 78 법회 일정

- 무엇을 가리켜 '더러움'이라고 합니까? — 법선 정사
- 밀교와 관음신앙_② 관음의 기원 — 원당 정사
- 윤회는 지속되는 것 — 불교총지종 법집원
- 깍다거喫茶去 — 지장 스님
- 부동심, 흔들리지 않은 마음 — 임진수
- 함박눈이 내린다 대설 — 위드다르마 편집실
- 봉인사 부도암 터 사리탑 출토 사리장엄구 — 위드다르마 편집실
- 옛사람의 사투리 — 한국고전번역원
- 건고한 언어 — 오대혁
- 당연한 건 없다 — 이육경
- 화내는 사람은 화택火宅에 산다 — 방귀희
- 네 가지 복락 — 화령 정사
- 차크라 — 남해 정사
- 우주의 피 An die Musik D.547 — 우벽송
- 기억과 자아 — 김천
- 슈가박타 씨 이야기 — 위드다르마 편집실
- 지족자부知足者富 — 탁상달
- 시냇물을 따라서 — 유소림
- 참회懺悔 — 해광 정사
-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4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회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종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빛나는 하나의 별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깜깜한 한밤중에 작은 배 한 척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지만
세찬 바람에 의해 풍랑이 높이 일어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풍랑이 격노하여 고향치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파도가 배를 삼킬 듯 무섭게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항해자는 캄캄한 밤하늘에
뚜렷이 빛나는 하나의 별, 북극성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린 화가는 그림 밑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었습니다.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하늘에 별이 없으면 배는 제자리를 맴돌거나
어디를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시기가 찾아와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묻곤 합니다.

그럴 때 잊고 살았던 자신만의
빛나는 별을 바라본다면 인생의 방향 길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4. 11. 12.

무엇을 가리켜 '더러움'이라고 합니까?

법선 정사
법상사 주교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다시 말해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연현상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는 곧 사회가 건강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했다는 뜻일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자기 의견과 주장을 펼치는 자유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논쟁에는 '꼭 있어야 할 한계와 책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극한으로 내달리며 마치 해방 공간에서 좌우익의 대립이나 극렬한 진보, 보수주의 다툼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느 날 사리פות타 존자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가진 더러운 속성'과 '그에 따르는 수행자의 태도'에 대해 비구들을 가르쳤습니다.

“세상 사람에 네 종류가 있다. 첫째 자기 안에 더러움이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둘째 자기 안에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고치려는 사람, 셋째 자기 안에 더러움이 없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넷째 자기 안에 더러움이 없음을 알고 앞으로도 더러움이 끼지 않도록 단속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 중에서 더러움이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더러움이 없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천한 사람이다. 그러나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치려는 사람과 더러움이 없음을 알고 더러움이 끼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사람은 수승한 사람이라.”

이때 어떤 비구가 일어나서 사리פות타 존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여쭙었습니다.

“존자여, 왜 어떤 사람은 더러움이 있는데도 수승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더러움이 없는 데도 하천하다고 하십니까?”

“더러움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또 더러움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더러움이 끼어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부지런히 닦으려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하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자신에게 더러움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더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므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수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존자여, 그러면 무엇을 가리켜 더러움이라고 합니까?”

“욕심에서 생기는 나쁜 행동을 더러움이라 한다. 예를 들어 계율을 범하고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기 바라거나, 남이 알게 되면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고 좋지 않은 마음을 품거나, 자신만이 부처님께 질문드리고 자신만이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부처님께서 자신만을 위해서 설법해 주시기를 바라거나, 이런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더러움이오. 그러므로 수행자라면 항상 이와 같은 더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사리풋타 존자의 가르침대로 자기의 더러움, 단점이나 결점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상을 둘러싸고 ‘전쟁과 같은 살벌함’이 벌어질까요? 위의 내용을 요즈음 말로 바꾸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률이나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도 자신이 그랬다는 사실을 남이 모르기를 바라거나, 혹 남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재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지적하면 공손하게 받아들이지만 반대로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며 불쾌해하거나, 세상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

지 않으면 심지어 세상을 원망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단점과 결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점과 결점이 없는 사람, 그리고 혹 단점과 결점이 있지만 ‘내게 이런 잘못이 있다’라고 살펴 알면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몰라 무방비 상태로 있거나, 자신이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주장만 옳다며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사리풋타 존자가 언급한 단점과 결점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살펴볼 마음조차 없이 남의 약점을 찾으려고 온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에게 혹시라도 ‘훌륭하다’는 수식어를 붙여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런 경향이 어느 한 분야에만 한정된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주장을 이해하고 사랑이 담긴 비판을 건네주는 자비심이 없이, 상대를 무너뜨리고 말겠다는 투쟁 의욕과 증오심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범했다 해도 거듭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악행에서 회열을 구해서는 안 되네. 악이 쌓이면 괴로울 뿐이



나, 결과가 나한테 오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며 악에 대해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리.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 물독을 가득 채우나니,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악을 하나하나 쌓아서 자신을 악으로 가득 채우게 되네. - 『법구경』

‘내게는 혹 잘못이 없을까?’ 자성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구성원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잘못을 할 리가 없어. 저 사람은 항상 나빠!’라며 ‘남 탓하기’에만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을 살펴 알고, 자기 바깥세상에 자비심을 품고 살아가는 평화의 화신이 되어야겠습니까? 한사람, 한사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심청정국토청정(心淸淨國土淸淨)’이고,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입니다.

관음의 명칭은 관음·관세음·광세음·관세자재·관자재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이처럼 관음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것은 산스크리트어 원어의 번역상 차이점 때문으로, 한역된 경전 속에 등장하는 관음의 명칭이 시대별로 다르게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관음의 산스크리트어 원어는 Avalokītasvara와 Avalokīta-Īśvara의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관음은 산스크리트어 Avalokīteśvara를 번역한 말로, ‘관자재’, ‘관세자재’라고 번역한다. Avalokīteśvara는 Avalokīta와 Īśvara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다. Avalokīta는 ‘관하여 보는’의 뜻으로, 구체적으로 ‘...(위)로부터 아래쪽으로 관하여 보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며, Īśvara는 ‘주관자’, 곧 ‘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Avalokīteśvara의 의미는 ‘위(하늘)로부터 아래(세간)를 관하여 보는 신’ 또는 ‘세간을 관건하는 신’을 뜻하고 있다. 또 다른 명칭으로 관세음을 ‘세자재’ 즉, Lokēśvara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뜻은 ‘Loka(세계)의 Īśvara(신)’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관음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주관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세자재’,



‘관세자재’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관음의 명칭을 ‘관하여 보는’을 뜻하는 Avalokita에 ‘음’을 뜻하는 svara가 첨가된 것으로 해석해서 ‘관세음’ 또는 ‘관세음자재’라는 명칭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관음의 명칭이 경전의 번역 시기나 경전의 성격에 따라 관세음·광세음·관세자재·관자재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의역되어 명칭상의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먼저 경전 번역 시기에 따른 명칭을 보면, 4세기까지 이루어진 고역에서는 관음·관세음·광세음으로 번역하였고, 구마라습에서 현장 이전까지 5, 6세기에 이루어진 구역에서는 관세음·관음이 주류를 이루고 관세자재도 보이며, 7세기 중반 현장부터 이루어

진 신역에서는 대부분 관자재로 번역하고 일부는 관세음·관음으로도 번역하였다.

여기에서 구역에서는 관세음·관음으로, 신역에서는 관자재로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범본 원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각기 다른 범본 「보문품」에서 Avalokitesvara와 Avalokiteśvara라는 명칭으로 각각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즉, 본래 ‘음’을 나타내는 -svara의 명칭이 후에 인도 고유신인 Ísvara(자재천)의 영향을 받아서 ‘자재’를 의미하는 -śvara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역도 서역 구자본을 번역한 구마라습의 구역에서는 ‘관세음’으로 부르고 인도에 직접 가서 경전을 가져와 번역한 현장 등의 신역에서는 ‘관자재’로 바뀌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경전의 성격으로 볼 때에도, 먼저 「보문품」에서는 고난과 액난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이 관세음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고뇌에서 해탈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관세음이 적합하고, 『반야심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공의 실천자로서 관자재로 불리는 것이 적합한 명칭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관세음과 관자재는 각각 충분한 의미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윤회는 지속되는 것

불교총지종 법장원

미란왕이 나선에게 물었다.

“스님, 다시 태어난 자와 사멸한 자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갓난아이였던 대왕과 지금 어른이 된 대왕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릴 적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른이 된 대왕은 부모도 스승도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학문이나 계율이나 지혜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어른이 되었을 적 어머니가 다릅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자와 이미 배움을 마친 자가 다릅니까? 죄를 범한 자와 죄를 범하여 손발이 잘리는 처벌을 받은 자가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묻습니까?”

“현재의 나를 보더라도 어릴 적 나와 어른이 된 나는 같습니다. 이 몸에 의존한 어릴 적 나와 어른이 된 나는 한 몸입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여기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다고 합시다. 그 등불은 밤새도록 타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초저녁에 타는 불꽃과 밤중에 타는 불꽃이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저녁의 불꽃과 밤중의 불꽃과 새벽의 불꽃은 전혀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꽃은 같은 등불에 의하여 밤새도록 타오를 것입니다.”

“인간이나 사물도 그와 같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생겨나는 것과 없어지는 것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고 동시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유가 변하는 경우와 같으니 짜낸 우유는 얼마 후 엉기게 되고 다시 기름으로 변합니다. 만일 우유를 엉긴 우유나 기름과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왕은 그 말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스님,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엉긴 우유와 그 기름은 우유를 바탕으로 변한 것입니다.”

“인간이나 사물의 지속도 이와 같습니다. 생겨나는 것과 없어지는 것이 별개의 것이지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미란왕소문경 彌蘭王所問經』

꼭다거 喫茶去

지장 스님

청주 용화사 연수원장

『조당집 祖堂集』에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두 젊은 스님이 어느 날 조주 선사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합니다. 조주 선사는 먼저 한 스님에게 전에 이곳에 와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스님이 없다고 하자 “차나 한잔 마시게”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스님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전에 와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자네도 차나 한잔 마시게”라고 하지요. 훗날 옆에 있었던 원주 스님(절 살림 담당자)이 전에 온 적이 있는 스님이나 없는 스님에게 왜 똑같은 말씀을 해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자네도 차나 한잔 마시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일화가 시사하는 바는 참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간화선 수행에서 수행의 주제로 삼기도 합니다. 수행의 차원에서 그 표면적 의미를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선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 말고 그냥 차나 마시라는 직접적인 뜻이 있겠지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차* 마시는 상황을 빌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차에는 맛과 향, 빛깔 등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이런 요소들을 음미하거나 즐기면서 차를 마십니다. 그런데 맛이나 향기, 빛깔 등은 별도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차, 그릇, 감각 기관 등이 만나는 순간에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시적 현상이지요. 차의 맛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고 그 맛이라는 것을 찾으려 한다면 무의미한 짓입니다. 찾으려 하지 말고 만들어 내는 게 답이겠지요. 여기서 차의 맛이나 향기 등은 실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상이며 상징입니다.

차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비유하자면 여러 가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기도 하고 때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재이면서 동시에 상상이며 상징이지요. 차 맛이나 마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심 不動心

- 흔들리지 않은 마음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우리는 언어, 타인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복잡한 관계라는 것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그 구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자아' 개념입니다. 주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자아'는 그렇게 주체적이지도 못합니다. 상상과 상징이 상상과 상징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욕망에 따라 반복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반복적 반응을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주인으로 불리는 그 작용은 대부분 대상에 대한 반응에 불과합니다. 사랑, 돈, 권력, 감각적 쾌락, 견해, 어떤 만족감 등에 대한 욕망의 발현에 가깝습니다. 실재이기 때문에 그 실재를 벗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르지요. 혹시 다른 차원에는 무언가 있을는지. 실재이지만 그 실재 속에 주체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큰 모순으로 여겨집니다. 누구는 그 모순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혹 누구는 그 모순을 받아들입니다.

차 한잔에 수많은 관념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알려고 헤아리는 그 작용도 차 맛, 차 향기와 같습니다. 주체이면서 대상입니다. 차 한잔 마시는 것 속에 그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질문이면서 동시에 답이 되네요.

중생심과 부동심

인간의 의식은 그 깊이를 알기 힘들다. '내가 나인 이유'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면서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안다고 착각하며, 다른 사람을 안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그렇게 '욕망인 나'에 기초한 삶에 충실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현재 '나'라고 인식하는 의식의 깊은 곳에는 나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나'가 존재한다.

그렇게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나'가 존재하는 영역에서 많은 생각과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에 숨어있는 욕망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중생심이다. 이 영역은 내가 나로 인식하는 현재 의식의 영역보다 수만 배 이상 큰 잠재의식의 영역이다. 이렇게 잠재의식의 영역에 존재하는 중생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판단과 생각은 현재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도 많다.



우리의 마음은 바닷속에 흐르는 해류와 같다. 겉에서 보기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바다 밑에는 수많은 해류가 흐르고 있다. 서로 작용하고 반응하며 흐르고 섞이며 움직인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늘 흐르고 섞이며 멈추는 법이 없다. 그래서 흘러가는 마음의 바다에 나를 그대로 두면 내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잠재의식의 어느 지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를 심어 놓아야 한다. 이렇게 심어 놓은 마음이 부동심이다.

부동심의 필요성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린다. 작은 자극엔 작게, 큰 자극엔 크

게 흔들린다. 흔들린다고 계속 흔들려서는 안 된다. 유연한 마음을 가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한다. 오히려 유연하기 때문에 마음에 중심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그 중심이 흔들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린다. 바다 밑 해류 속에 자신을 던져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흔들리는 마음은 중심을 잃은 마음이고, 유연한 마음은 중심을 둔 채 변화하는 마음이다. 경계에 부딪혀서 중생심이 일어나면 사람의 마음은 갈대처럼 변한다. 애초에 먹은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중생심에만 머물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부동심이다. 사람들은 보통 본능적인 욕구와 사회적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구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감각에 의한 고통과 쾌락, 감정에 의한 좋음과 싫음, 생각에 의한 옳고 그름에 쉽게 빠져든다. 이렇게 욕망에 빠져든 마음은 이미 물들어 버린 마음이다. 이렇게 물든 마음은 필연적으로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만들고, 시기와 질투를 넘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중생심에 사로잡혀 헤매게 되는 것이다. 부동심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면서, 동시에 돌아올 수 있는 기점이다. 다시 말하면 경계에 부딪혀 중생심에 잠식당하더라도 부동심이라는 중심점을 통해 극복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심의 특징

부동심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말한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란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한다. 온갖 경계에 부딪혀 중생심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란 감각이, 감정이, 생각이, 욕망이 나를 침범했을 때, 감각이나 감정, 생각, 그리고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점을 의미한다. 이 중심점이 현재 의식과 잠재의식을 관통해서 일관되게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심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시작이다. 그래서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수행자들은 불 속에서도 물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 갖기를 발원한다. 결국 부동심은 마음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자 과정이며 목표가 된다.

부동심과 마음챙김

그래서 부동심이 없는 마음챙김이나 명상, 수행은 모래로 밟

을 짓는 것과 같다. 마음챙김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은 항상 대상에 물들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게 물드는 과정을 눈치채기는 쉽지 않다. 이미 대상에 물들어 버린 마음인 줄 모르고, 마음챙김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자신은 마음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마음을 챙긴다고 하면서 마음이 경계에 물든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챙김이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은 마음을 챙긴다고 하지만 이미 물들어 버린 상태이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흔들리지 않는 지점을 만들고, 그 지점을 기점으로 마음이 대상에 물들더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심을 어느 정도 얻고 나면, 일상에서 부딪치는 사소한 마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외부의 자극 때문에 쓸데없는 감각, 감정,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외부의 자극을 자극으로만 알아차릴 뿐 그 자극으로 발생하는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근거가 된다.

또한 부동심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작은 깨달음들과 부동심은 다음에 익힐 자비심의 기초가 된다. 마음공부가 어느 정도 익고 흔들림이 어느 정도 멈췄을 때, 마음을 세상에 펼치면서 자비심을 익혀야 한다.

대설은 이 시기에 함박눈이 많이 내린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대설은 중국 화북지방의 계절적 특징을 반영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이 시기에 적설량이 많다고 볼 수 없다. 대설은 소설과 동지 사이에 위치하며 24절기 가운데 스물한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이다.

시기적으로는 음력 11월, 양력으로는 12월 7일이나 8일 무렵에 해당하며 태양의 황경은 255도에 도달한 때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음력 10월에 드는 입동과 소설, 음력 11월에 드는 대설과 동지, 그리고 12월의 소한, 대한까지를 겨울이라 여기지만, 서양에서는 추분 이후 대설까지를 가을이라 여긴다. 대설이 있는 음력 11월은 동지와 함께 한겨울을 알리는 절기로 농부에게 1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농한기이기도 하다.

대설과 관련된 속담으로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라는 말이 있다. 눈이 많이 내리면 보리를 덮어 보온 역할을 하므로 동해(東海)를 적게 입어 보리 풍년이 든다는 의미다. 농촌에서는 대설이 되면



된장, 간장, 고추장의 주재료인 메주를 쑤기 시작한다. 음력 10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어 띄우고 정월에는 장독에 소금물을 붓고 메주를 넣어 장을 담갔다.

겨울철에는 호박죽과 비빔밥이 별미다. 옛날에도 대설 무렵에 늙은 호박으로 호박죽을 쑤어 먹었다고 한다. 또한, 호박은 위장을 보호하고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효능이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 감기에 걸리기 쉬운 겨울에 좋은 음식이다. 옛날에는 겨울나기를 대비해 말려둔 나물로 대설 무렵에 비빔밥을 해서 먹기도 했다. 밥을 고슬고슬하게 대접에 담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나물을 얹어 비벼 먹는 비빔밥은 속을 든든하게 해주어 추운 겨울에 먹기에도 좋은 음식이다.

봉인사 부도암 터 사리탑 출토 사리장엄구

위드다르마 편집실



봉인사 부도암 터 사리탑 출토 사리장엄구, 조선 1620~1759년, 지름 13.7cm(대리석 사리합), 1.4cm(수정 사리병), 보물, 신수9427~9430, 국립중앙박물관 김민송 큐레이터 추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봉인사 부도암 터 사리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바로 왕실에서 발원한 불교 공예품입니다.

왕세자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다

남색 보자기와 대리석 합 1점, 유제 합 3점, 은제 합 2점, 그리고 수정 사리병 1점으로 구성된 사리장엄구는 봉인사 부도

암 터 사리탑의 탑신 중앙에 마련된 사리공(舍利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바깥쪽 사리기인 대리석 합 겉면에는 붉은색 꽃과 검은색 줄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리석 합은 본래 뚜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몸체만 남아 있습니다. 대리석 합 안쪽에 뚜껑이 있는 유제 합 세 개가 차례로 들어 있었고 대리석 합과 유제 합에는 직물 조각과 실 꾸러미, 향목(香木) 등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원통형 사리합 안에 사리를 직접 담은 수정 사리병이 들어 있었고, 사리병은 금으로 만든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은제 사리합의 뚜껑에는 용과 구름을 새기고 금박을 입혔습니다. 은제 사리합 바닥에 새겨진 글씨를 보면 1620년 광해군(재위 1608~1623)의 세자인 이지(李祚, 1598~1623)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이 사리장엄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세 개의 유제 합은 제작 기법으로 보아 영조(재위 1724~1776) 때 탑을 수리하며 추가로 봉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리기들은 비단 보자기에 싸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남색 비단 보자기에는 별다른 문양은 없으나, ‘귀남성취’, ‘김규홍…귀남축원’ 등의 한글이 쓰여 있습니다. 보자기에 적힌 문구들은 사리장엄구를 추가로 제작하면서 발원자들의 소망

을 적은 것으로, 보자기 또한 영조 대 추가로 납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봉인사 부도암 터 사리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두 차례에 걸쳐 제작, 봉안되었습니다.

왕실 원당에 모셔진 사리

봉인사에 사리를 봉안하게 된 이유는 다른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조에 따르면 청나라 사신 응유격(熊遊擊)이 사리 1과를 바쳤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궁궐이 아닌 사찰로 보냅니다. 이때 사리를 보낸 사찰이 왕실 원당(願堂)이던 봉인사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뿐만 아니라 탑비에 새겨진 ‘봉인사세존부도탑기’에도 만력 47년(1619) 천마산 봉인사 동쪽으로 200보 떨어진 곳에 탑을 세우고 중국에서 온 사리를 모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을 통해 청나라 사신이 바친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봉인사 사리장엄구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조선은 승유역불 정책으로 불교를 배격했기에 사리를 궁궐에 들이는 대신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 씨의 능침 사찰인 봉인사에 모셨던 겁니다.

봉인사 사리장엄구는 조선이 정책적으로 불교를 배격했으나

왕실을 비롯한 개인들이 신앙으로서 불교를 받아들인 사회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출된 탑과 사리장엄구,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다

봉인사 부도암에 세워진 사리탑은 이후 사찰이 화재로 폐사되자 방치되었습니다. 폐사된 사찰에 방치된 사리탑을 일제강점기인 1927년에 일본인 이와다 센소(岩田仙宗)가 헐값에 사서 일본으로 몰래 반출했습니다. 이렇게 반출된 탑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1979년 봉인사 재건 과정에서 땅에 묻혀 있던 ‘풍암대사부도비’가 발견됩니다. 이 비석에서 탑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사찰은 기록 속 사리탑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오사카시립박물관에 탑이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1983년부터 일본에 탑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지속적인 요청 끝에 탑을 구입했던 이와다 센소의 반환 유언과 정부의 노력 덕분에 1987년 2월 사리탑과 탑 안에 봉안된 사리장엄구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돌아온 봉인사 사리탑과 사리장엄구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되돌려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역(周易)〉의 현토는 선대(先代)로부터 영남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사투리가 많다.

周易吐，祖宗朝嶺南人所懸，故多鄉音矣。

주역토, 조종조영남인소현, 고다향음의.

- 〈선조실록〉 30년 5월 27일 기사

옛날에는 지금보다 지역 간의 언어가 더 크게 달랐을 것이다. 지금도 간혹 사투리를 심하게 쓰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대부도 당연히 자신이 오래 살아온 지역의 사투리를 사용했겠지만, 그 실상은 알기 어렵다. 우리는 그들이 남긴 글을 통해서만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글이라는 것이 대부분 한문 문어체라 사투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혹 다른 지역으로 유배를 가거나 관직 생활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을 기록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어휘를 기록하는 수준에 그쳤다. 녹음기가 없던 시절이니 사투리의 역양이나

실생활에서의 용례까지는 기록으로 남길 수는 없었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 사대부들은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표준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랬을 리가 없다.

퇴계 이황 선생은 생의 대부분을 영남 지역에서 보내셨으니 당연히 경상도 사투리를 썼을 텐데 가끔 서울에 올라오면 서울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었을까? 어쩌면 선생의 사투리가 너무 심해 서울 토박이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을까? 지금도 간혹 그러듯이 서울에 있을 때만이라도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말끝을 올리는 어색한 서울말을 사용했을까?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왕을 만날 때는 어떠했을까?

사료를 보면 드물게나마 사투리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은 일상의 대화보다는 경서의 현토나 언해에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영조가 신하들과 〈맹자〉를 강독하다가 언해의 발음을 보고 사투리냐고 묻자, 김용경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언해가 영남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통 언해의 글자 발음은 대부분 사투리입니다.

諺解出於嶺南，故凡諺解字音，率多鄉音。

- <승정원일기> 영조 1년 8월 28일 기사

당시에는 지금처럼 표준어를 공식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에서 왕족과 사대부들이 사용하는 말을 지방이나 민간의 말과 분명히 구분 짓는 경향은 있었을 것이다. 언해나 현토를 사투리로 적는 것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유희춘은 아동의 한자 학습서인 <신증유합^{新增類合}>을 편찬하였는데, 선조는 이 책을 매우 칭찬하면서도 글자 풀이에 사투리를 썼다고 아쉬움을 표하였다. 이에 유희춘은 자신이 지방 출신이라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쓰게 되었다고 해명하였고, 이후 책의 사투리를 교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유희춘은 해남 출신이니 글자의 의미를 풀이할 때 전라도 사투리를 적은 것이 많았을 것이다. 교정하지 않았다면 당시의 전라도 사투리를 고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극이 나름대로 고증을 철저히 하지만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듯하다. 영남과 호남(간혹 충청도)의 사투리를 핵심적인 개그 코드로 활용했던 영화 <황산벌>, 이성계와 이지란이 북방 지역 사투리를 맛깔나게 구사했던 드라마 ‘정도전’ 정도를 제외하면 사극의 등장인물, 특히 귀족이나 양반 계급의 등장인물이 사투리를 사용



한 사례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에 오래 산 사람이라면 모를까, 평생을 지방에서 살다가 갖 서울에 올라온 사람은 당연히 완벽한 네이티브 사투리를 구사했을 것이고 몇 년 정도 서울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은 억양은 남아 있되 상당히 서울화된 사투리를 구사했을 것이다. 평소에는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하다가도 흥분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른다.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출신 지역에 따라 저마다의 사투리를 쓰는 사극이 나오면 어떨까. 영호남은 물론이고 제주도에도 북한 지역까지 포함하면 아주 다양한 사투리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자막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견고한 언어

오대혁

동국대학교 고전문학 전공
 시인, 문화비평가
 논문 및 저서 『원효설화와 미학』
 『금오신화와 한국소설의 기원』
 공동 시집 『시의 끈을 풀다』

할머닌 늘 골 아프다시며
 뇌선이란 가루약을 주름살과 함께 드셨다
 골 깊은 볼에 검버섯 피워낸
 헛헛한 세월은 만성두통이었다
 마흔 살쯤 사삼 난리에 저승 들렀다
 판관으로 계신 당숙 어른 뵈고 오셨다며
 산목숨은 살아서 배워야 한다고
 염라대왕처럼 말씀하시곤 하셨다
 품 맞은 지아비 병시중 드시다

아흔 고개를 넘기시더니
 골방에 몸 부리시고
 곡기를 너댓새 끊으시더니
 측간을 다녀오신 후
 할머니는 비틀거리는 눈을 끄뵈이시며
 바짝 마른 입술을 달짝이셨다
 눈발이 날리네

당연한 건 없다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나는 라디오를 즐겨 듣는다. 문외한이라 그런지 격조 있는 클래식 음악이나 날 선 정치 토크와는 별로 친해지지 못했지만, 청취자들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은 하루 종일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소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모났던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복잡했던 머릿속이 한결 정리가 된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음이나 위로를 얻기도 하고, 웃고 울고, 감동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세상 공부를 하게 되니 이만한 스승도 드물다.

라디오의 장점 중 하나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느 날처럼 어제도 라디오를 켜놓고 일과를 시작했다. 귀는 여전히 열어둔 채 아침 식사를 챙기고, 청소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그러다가 문득 손길을 멈추게 됐다. 남편과 함께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다는 여성이 보낸 사연에 이끌려서다. “베 펀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로 시작하는 이 글은 중고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스무 살짜리 사회 초년생 ‘아이’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부부의 이야기다.



Photo by Yosuke Ota @Unsplash

(자세한 설명은 없었으나 미루어 짐작건대 보육 시설에서 독립한 듯) 아이를 처음 만난 날, 부부는 아이의 딱한 처지에 눈물을 흘렸고, 1년간 매월 10만 원씩을 후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부

부에게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여유가 없어 보여서, 의지할 사람 없는 아이에게 의논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고 싶어서, 누군가 자기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부부의 자동이체 메모가 ‘밥은 꼭 챙겨 먹어’였을 만큼 기꺼운 마음이었다. 틈틈이 반찬도 챙겨다 주고 아플 땐 삼계탕이며 대구탕도 끓여다 주었다. 아이가 이사를 하게 됐을 때는 하루 전부터 반나절 영업을 접고 대청소에 정수기, 비데를 설치해 주고, 부부의 차로 이삿짐까지 날라줬다.

그런데 홀로 험난한 세상과 마주한 아이를 진심으로 응원했던 이 여성은 지금 혼란스럽기만 하다. 돈은 통장에서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데, 고맙다는 아이의 문자는 처음 두어 달로 끝이 났다. 아이가 잘 살면 된다고, 아이에게 바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성은 아이의 무응답, 무반응이 서운하다. 자신들의 순수한 마음을 당연시하는 것 같아 속도 상한다. 어렵게 살다 보니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도 해보지만, 버릇없는 아이가 경우 없는 어른으로 굳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된다. 아이가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일깨워 줘야겠다고 생각하면 공치사하는 것 같고, 나 몰라라 하려니 그것도 어른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이런 아내의 속앓이에 남편은 “그 아

이도 다 알 테지. 좋은 마음으로 약속했으니 우리는 이행만 하면 된다.”라면서 처음에 그랬듯이, 자동이체가 끝나는 12월에도 아이를 불러 따뜻한 밥 한 끼 해 주고 좋은 선물도 해 주자며 아내를 다독인단다. 철딱서니 없는 이 스무 살짜리를 ‘아이’라고 부를 정도로 측은지심이 깊은 아내 역시 그러겠노라 마음먹고 있지만….

이 글을 쓴 여성이 애면글면하는 데는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아이에 대한 서운함도 있지만, 잘못하면 공치사가 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잘못을 선뜻 타이르고 바로잡아주지 못하는 어른으로서의 안타까움이 더 크다. 아이의 모든 것을 걱정하고, 아이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보는 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서투나마 아이의 감사가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석가모니께서 연꽃을 들어 보이자 제자 중 오직 가섭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는 염화시중의 미소처럼 이들 사이에 이심전심이 더해졌더라면 이 이야기는 한 편의 동화가 되었을 텐데.

그리고 보니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또 있다. 미국의 미시간 호에서 유람선이 뒤집혔는데 그 사고 유람선에 타고 있던 수영 선수가 목숨을 걸고 23명을 살려냈고, 방송이며 신문에 그의 이름이 떠들썩하게 오르내렸다. 수십 년 후 신학자 R. A. 토레이 박사

가 LA의 한 교회에서 이 사람의 희생적 사랑에 대해 설교하던 날, 마침 그 교회에 노신사가 된 그 수영 선수가 와 있었다고 한다. 토레이 박사가 노신사에게 그 사건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냐고 묻자, 그 노신사가 씩씩하게 웃으며 “제가 구출한 23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실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납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방송은 아니지만 내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 본다. 여행길에 살아서 펄펄 뛰는 튼실한 대하를 맛보게 됐다. 대하뿐 아니라 새우라면 자다가도 별떡 일어나는 친구 생각에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기뻐할 친구 모습을 상상하며 택배로 대하 3kg을 보냈다. 그런데 감감무소식이다. 이튿날 여행지에서 배송 완료를 알리는 택배사의 문자를 받았는데도, 그다음 날도, 사흘 후 집에 돌아와 다시 일주일 더 지나도 친구는 가타부타 소식이 없었다. 라디오 사연 속 여성처럼 내가 먼저 물어보는 것도 없드려 절 받기 같아서 나 또한 침묵... 믿거라 하는 것이라니 이해하자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것인가, 서운하고 꽤썩한 생각이 점점 커지는데. 예라, 모르겠다! 내 마음 편하자고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깜빡 잊고 있었다, 고맙다, 미안하다, 아우성에 가까운 친구의 목소리가 붓물을 이룬다. 하지만 부디 친구가 알아듣기를. “다시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는 내 말이 그저 농담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불가^{佛家}에서는 사^四은^圓, 곧 부모님의 고마움, 이웃의 고마움, 나라의 고마움, 스승의 고마움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인간과 짐승을 구분한다고 한다. 더러 고마움을 표하는 짐승도 있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도 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말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한결 가까워지지 않던가. 감사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며, 돈독한 신뢰를 쌓는 지름길이다.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유행가 가사처럼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감사의 반대말을 당연함이라고 한다. 호의가 계속 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도 있다. 큰 도움을 받고도 자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대가요, 권리라고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이 생길 리 없고, 처음 가졌던 감사함도 서서히 퇴색하게 된다. 방송 사연 속 그 아이의 침묵이 당연함이 아니기를, 절절하게 깊은 마음이라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기를. 우리가 허투루 지나쳤던 수많은 당연함이 감사함으로 피어나기를. 매일 이렇게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과 소소한 일상조차 고마워할 수 있기를. 미루지 말자.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으니.

화내는 사람은 화택^{火宅}에 산다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송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교수
 <E美지> · <숫대평론> 발행인
 저서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심상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고 그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 했다.

이 말은 우리가 무분별하게 화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할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아기 얼굴을 내리쳤다. 깜짝 놀란 할머니가 손으로 아기 얼굴을 가리자 그 폭행녀는 할머니 손을 물었다. 결국 경찰이 와서 현행범으로 연행해 갔는데 폭행 이유를 묻자 아기가 발로 자기를 찔기 때문에 화가 나서 아기를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나는 도무지 믿어지질 않았다. 앙증맞은 아기 발이 자기 몸에 닿았을 때 보통 여자 같으면 아기를 향해 미소지으며 ‘예구 힘도 세네. 금메달 감인걸’이라며 아기를 칭찬했을 것이다. 고의성이 전혀 없고 갓난 아기는 방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난폭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여자는 법적 처벌은 무서웠는지 분노조절장애로 참지를 못한다고 자기 행동을 마치 질병 때문인양 변명을 했다고 한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노인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된다. 살다보면 화가 치밀어오르는 일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럴 때 화를 내기보다는 참는 것이 일상이다. 화를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 참으면서 천천히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하기 때문이다.

화를 내야 하는 경우는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화를 풀어야 하는데 요즘 우리는 아무한테나 아무 때나 아무 이유도 없이 마구마구 화를 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위험한 곳이 되었다.

부처님께서 중생이 가지고 있는 세가지 독은 욕심,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하시며 분노의 위험을 화택火宅에 비유하였다. 분노하여 화를 내는 사람들은 불타는 집에 갇혀있어서 스스로 타죽게 되는 것이다. 마음에 분노심이 가득차 있으면 가슴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화택 안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

집에 불이 나면 우선 집밖으로 탈출해야 하듯이 우리는 분노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부처님은 '화를 내는 사람을 자애로 이겨라'고 하였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 그 사람도 똑같이 화를 내게 된다. 화냄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멈춰야 끝나기에 화를 화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신 것이다.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한다. 부처님께서 화가 나는 상황에 대응하는 몇가지 가르침을 주셨다. 행실이 나쁜 사람은 훌륭한 실천으로 이기고, 인색한 사람은 베풀음으로 이기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의 말로 이기라고

하셨는데 이는 악은 선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자기 주장만 할 뿐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 그래서 합의가 없고 갈등만 있다. 서로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아내면 불타는 집이 아니라 화합하는 화택和宅이 될 것이다.

무분별하게 화를 내는 것은 폭력이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폭력을 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화를 내면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화를 내면 잃는 것이 너무나 많다. 부처님께서 화를 내는 사람을 자애로 이기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분노의 불길을 끄기 위해 장착할 소화기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선한 마음이다.

네 가지 복락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는 이는
장수와 아름다움,
행복과 힘의
네 가지 복락을 언제나 누리리라.

젊을 때는 나이가 든다는 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항상 그 젊음이 유지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을 보면 경멸하고 거추장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나이가 들어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젊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람 있게 보내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그 복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미래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들을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공덕으로 건강과 아름다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차크라

남해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 사무국장

11월 월초불공, 토요일 대중불공을 마치고 서원당에서 내려오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각자님이 밀교에 관해 알고 싶다며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다. 총지종과 밀교에 관해 설명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니 자신은 중국의 무협지와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고 밀교의 차크라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차크라 수행을 배워 병석에 계신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고 싶다고 하였다. 각자님에게 차크라 수행법은 후기 밀교인 탄트라불교의 수행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총지종은 중기 밀교의 수행법인 삼밀관행수행법을 하는 종단이라고 말씀드리며, 매일 10시에 서원당에서 대중불공을 하니 언제든지 찾아오시라고 전했다.

‘차크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수레’라는 뜻으로, 인간 신체의 여러 곳에 있는 정신적, 물질적 그리고 정신의학적 견지에서 정확하게 규명될 수 없는 인간 정신의 중심부를 말한다. 힌두교와 탄트라 불교에서 행해지는 신체 수련(요가)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 정신적인 힘과 육체적인 기능이 합쳐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차크라 수행은 인간의 신체에는 약 8만 8천 개의 차크라가 있으며 물라다라 차크라(회음), 스바다스타나 차크

라(음부), 마니푸라카 차크라(복부), 아나하타 차크라(가슴), 비슈다 차크라(목), 아즈나 차크라(미간), 사하스라라 차크라(정수리)의 일곱 군데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을 활성화하는 수행이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주인공 닥터 스트레인지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신경외과 의사에게는 사형선고라 할 수 있는 수전증을 가지게 된다. 좌절해 있던 스트레인지는 걸어 다니는 게 불가능한 척추 부상을 당하지만, 다시 걷는 것에 성공한 남성에게 대해 듣게 된다. 그 남성을 찾아 네팔 카트만두를 찾아가고 카마르 타지를 찾아 헤매 그를 만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스승인 에이션트 원을 만나게 해 주고, 에이션트 원은 차크라 에너지의 힘을 이용해 닥터 스트레인지의 손을 치료하게 된다.

거대한 나선은하들로부터 수천 광년을 건너,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무수히 많은 원자에 이르기까지, 우주는 회전하는 수레와 같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회전하는 작은 수레로 만들어진 꽃, 나무, 식물, 그리고 사람 모두는 지구라는 거대한 수레를 탄 채 자신의 궤도를 돌며 우주를 통과한다.

지구의 중심에는 핵이 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핵이 회전하게 되고, 금속 성분인 핵이 회전하게 되면 전기적 자기장을 가



지게 된다. 이 지구 자기장은 모든 물체와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 또한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몸에는 생체전류라는 전기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사람의 모든 세포는 이 생체전류를 주고받음으로써 유지되고 변해간다. 생각 또한 뇌세포의 생체전류를 주고받음이고, 우리가 말하고 숨 쉬고 행동하는 것 또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생체전류를 주고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심전도, 근전도 검사도 이 생체전류의 흐름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우리 모두 각자의 내면 중심부에는 차크라라고 불리는 일곱 개의 바퀴처럼 생긴 에너지 센터가 돌고 있다. 소용돌이치는 생명

력의 교차로인 차크라는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일곱 개의 차크라가 함께 모여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을 통합하는 심오한 공식을 창조한다. 차크라는 완전한 시스템으로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의 성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 뇌세포를 비롯한 우리 몸의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생체전류가 활성화된다. 생체전류가 증가하면 우리 몸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분들에게는 광체가 나는 것이다.

우주의 피

An die Musik D.547

우벽송

성악가, 시인, 현대미술가
이탈리아 외 독창회, 오페라공연 다수
저서 <닥치고 슈베르트>

이 곡을 통해 슈베르트와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프란츠 폰 쇼버는 슈베르트의 친구이자 시인이었고, 슈베르트는 친구가 쓴 시에 옷을 입힌 음악으로 인류를 오늘 까지도 통째로 흔들 수 있었다.

슈베르트의 <An die Musik>은 음악이 음악에게 감사하는 모순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곡이다. “... 오 음악이여, 그 수많은 회색빛 어두운 시간에서 내게 구제의 손길을 뻗어주었으니 내 그대에게 진정 감사하노라...”, 이렇게 철학이 철학을 질책하듯 음악이 음악을 노래했다.

이 곡에는 마지막으로 눈 감기 전 부인에게 ‘그동안 나와 살아 줘서 고맙수다래’ 하는 어느 북한 출신 할아버지의 진솔한 감사가 들어 있으며, ‘먼저 가니 몹시 미안하오’라는 쪽지 한 장 남긴 채 강물에 뛰어든 어느 부도난 회사 사장의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있으며,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백혈병을 앓던 어린 딸이 ‘엄마 미안해, 그동안 고마웠어’하는 고마움이 들어 있으며, 미국에 묻히신 부모님 산소에 아직 가보지 못한 바리톤의 눈물도, 수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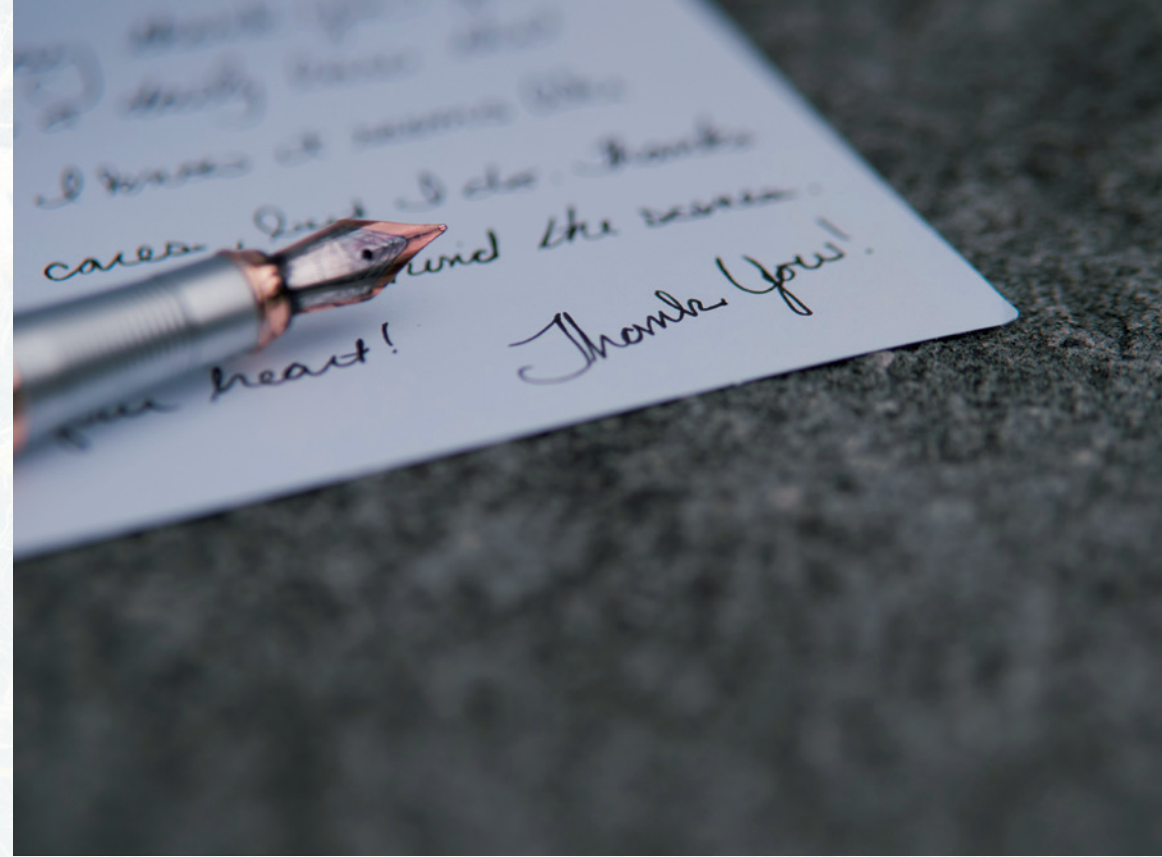


Photo by Aaron Burden@Unsplash

가난한 예술가의 고해성사도 담겨 있다.

그래서 이 곡은 종교적 거룩함도 초월하는 사랑 고백이라 할 수 있다. 음악이라는 것이 슈베르트를 통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경건해졌으며, 이름까지 같은 슈베르트의 친구이자 시인이었던 쇼버에 의해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해졌다.

음악은 보이지 않는 것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기억과 자아

김천

작가, 시나리오, 다큐멘터리 제작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저서 <불공 잘해라>, <시대를 이끈 창조자> 등

보여준다. 훌륭한 음악은 어떠한 분위기나 아른거리는 풍경이나 울컥하는 기억이나 희미한 장면이나 기운까지도 주는데, 그것은 그런 음악이 공간을 주기 때문이다. 공간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듯이 감동을 주는 음악은 은하수 별 사이에 비어 있지 않으며 ‘음악’이라는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조용하게 기도할 때 증얼거리는 목소리로 “Ich danke dir(나 그대에게 감사하네)”라는 이 엄청나게 아 니 눈물 나게, 아니 피 철철 흐르는, 진실한 말에는 저 깊고 검은 하늘에 박혀 비추는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연결해 주는 우주의 피가 흥건히 묻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음악을 ‘우주의 피’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1817년 3월 프란츠 슈베르트가 20살이 되던 해 친구 프란츠 폰 쇼버(Franz von Schober, 1796~1882)의 시에서 따온 텍스트로 독창과 피아노를 위한 리트 <An die Musik(음악에게)>을 작곡했다. 뒤 숫자D547은 오토 에리히 도이치라는 오스트리아 음악 학자가 프란츠 슈베르트의 작품을 정리한 목록(Deutsch-Verzeichnis)의 작품번호이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기억한다. 지나가 버린 시간은 오직 기억 속에 존재한다. 기억은 유용하지만 반드시 이로운 것만은 아니다. 더러는 잊어야 한다. 슬픈 기억과 아픈 상처는 버려야 하고, 떠나보내야 할 것은 놓아 버려야 한다. 지나간 기억 속에 자신을 가두면 불필요한 집착으로 삶을 채우게 된다.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기억은 무엇일까.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가 기억 속에 담겨 있고, 인류가 거쳐 오며 겪은 생존의 역사도 유전자 속에 기억되어 있다. 기억이 있기에 역사가 가능하다. 기억을 통해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자의식을 갖는다.

자의식이 지나치면 불편하다. 부처님께서서는 인과의 연기를 통해 살펴보면 ‘나’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가르치셨다. 자의식은 ‘내가 기억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십 분전을 돌아보아도 기억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깨달을 수 있다.

인간의 존재와 기억에 대해 다루고 있는 흥미로운 몇 편의 영

화가 있다. 미국에서 제작된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는 40여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도 유용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영화는 기억이 과연 진실만을 담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영화의 배경은 자원을 찾아 우주에 식민지를 경영하는 미래의 세상이다. 인조 생명체인 사이보그 리플리컨트를 만들어 인간의 역할을 보조하는 시대이다. 기계에 인간의 기억을 이식하여 인간처럼 생각하면서 일하도록 했다. 기억을 갖게 된 기계는 자의식도 함께 갖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묻는다.

어떤 사이보그는 스스로 인간이라고 굳게 믿는다. 또 다른 사이보그는 삶의 기억을 가진 자신이 왜 인간과 다르며, 자기 행복을 선택할 권한이 없는지를 묻고 있다. 영화 속의 사이보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를 죽음에서부터 구해 주면서 말한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기분이 어떤가? 그것이 노예의 감정이다.”

어떤 경우 과거에 실패한 기억이 현재의 두려움을 만들고 있

지는 않은지 물어보아야 한다.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컴퓨터와 인공 지능이 발달하면서 영화 속의 가상 세계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간의 기억을 컴퓨터에 옮기고 의식을 흉내 내는 일이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이루어진다. 과학은 기계가 감정을 갖고 의식을 형성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예고한다.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순간이 닥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억과 개인의 정체성을 다룬 또 하나의 영화는 폴 버호벤 감독의 <토탈 리콜>이다. 미래 세계 지배 계층은 필요에 의해 개인의 기억을 바꿔 놓는다. 주입된 기억에 의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보여준다.

영화는 우리의 기억은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신의 본질을 착각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믿는 자아란, 기억이라는 거울을 통해 바라보는 허상일 수도 있다. 기억이 진실만을 전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필요에 의해 기억을 조작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교묘하게 기억을 왜곡하고 사실을 숨긴다. 경험은 필요에 의해 무의식 속에서 다

른 모습으로 조작된다. 내가 기억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대한 고목은 커서 보면 작은 나무에 불과할 때도 있다. 사람은 필요에 의해 기억을 만들기도 한다. 기억이 틀린 경우를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매 순간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워쇼스키 자매의 영화 <매트릭스>는 세상과 삶 전체가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설정한다. 인간의 삶 자체가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주입된 프로그램에 의해 정해진 대로 세상을 인식하고, 짜인 대로 살아간다. 가상현실의 꿈에서 깨어난 사람은 기억하고 보이는 세상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불교는 자각하지 못하는 현실을 환상(Maya)이라고 일깨운다. 실체가 없는 허깨비를 실상이라 믿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꿈같은 허망에서 깨어나라고 가르친다.

영화 <매트릭스>는 현실과 허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을 고르듯이 눈을 감은 채 꿈속에서 살아갈지, 고통스럽지만 현실을 바라볼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기계적으로 기억에 사로잡혀 살 것인지, 헛된 망상을 떨쳐 버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인지 결단이 필요하다. 주어진 현실에 굴



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노예의 삶이다. 부정해도 현실의 노예인 것이다.

영화는 그 자체가 환상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 준

다. 실재하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커다란 화면에 만들어진 가상의 현실을 보여 주고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잘 만든 영화는 허구를 현실처럼 믿게 만든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진 후에야 깨어날 수 있다. 무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고 기뻐했던 것이 다만 허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관객을 사로잡았던 격렬한 상황은 삼시간에 사라지고 만다. 바로 보지 못하면 현실이 영화와 같은 환상이다.

당나라에서 선종의 뿌리 하나를 만들었던 신라 출신의 무상 선사는 ‘과거의 기억을 버리는 것^{眞亡}’이야말로 선^眞의 관건이라고 했다. 기억에 의존하면서 삶을 과거 속에 가두어 놓지 말고 매 순간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선의 정신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기억은 지나가 버린 일의 자취이다.

“인간이 번뇌가 많은 것은 기억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기억을 버리면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 수 있다.” <동사서독^{東邪西毒}>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황약사가 남긴 말이다.

더러는 잊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어리석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원시불교 경전인 『대장엄론경^{大莊嚴論經}』에 실린 이야기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위국^{舍衛國}의 기원정사에서 대중을 모아놓고 설법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구시나가라의 하그로우라촌에 슈가박타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집안이 대대로 부유했는데 그의 대에 이르러 재산을 다 날리자, 누구 한 사람도 상대해 주지 않았다. 그는 팔시를 받는 고향을 떠나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오로지 돈만 모을 것을 결심하고 떠났다.

그리하여 결국 수만금의 돈을 모았다. 나이가 든 그는 고향에 가고 싶어졌다.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금의환향을 준비했다. 그가 큰돈을 모아 고향으로 온다는 소문을 들은 이웃 사람들은 동네 입구에서부터 그를 맞이하러 나가서 이제 나저제나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와 같은 소문을 듣고 일부러 남루한 옷차림으로 대열의 맨 앞에 서서 돌아왔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이름을 드날리고 돌아오신다는 슈가박타 씨는 어디에 계십니까?”

“뒤에 오고 계십니다.” 그는 그렇게 일러 주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동네 사람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다시 뒤에 오는 사람에게 물었다.

“슈가박타 씨는 어디 계십니까?”

“아, 장자 어른 말씀입니다. 장자께서는 행렬의 맨 앞에서 가

셨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다시 맨 앞으로 쫓아가서 그를 찾아 힐문하였다.
“우리가 환영하러 나왔는데 어떻게 고의로 피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만나고자 하는 슈가박타는 뒤에 따라오는 낙타의 등 위에 실은 보물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냉담한 어조로 답했다.

용모가 단정한 사람을 단정하다고 말할 순 없다.

오직 마음이 단정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존경하는 사람,
이것을 가리켜 단정이라고 말한다.

-『옥야경 玉耶經』

지족자부 知足者富

탁상달

시인, 문학평론가
전 동해중학교 교장

노자[老子, BC 6세기경에 활동한 중국 제자백가 가운데 하나인 도가[道家]의 창시자]는 <도덕경>에서 “족한 줄 알면 욕된 것이 없고, 머무를 줄 알면 위태로운 일이 없다[知足不辱, 知止不殆]”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가이장구[可以長久] 즉, 오래 보전할 수 있다고 노자는 덧붙였다. 오래 보전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과 행복을 의미한다.

여기서 “족함[足]을 알면 욕된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나의 형편과 처지에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의 분에 넘치는 탐욕과 사치와 낭비하는 생활을 하면 종말에 가서는 반드시 곤욕과 불행을 겪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머무를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진퇴[進退]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은 나아갈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기 마련이다. 나아갈 때에는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물러설 때는 이 역시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왜 실패의 나락에 떨어지는 우를 범하고, 또는 좌절하거나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될까?



이는 물러설 때 물러서지 않고 머물러야 할 때 머무르지 않고 오직 저돌적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결국 삶의 지혜라는 것은 족함[足]과 머무름[止]을 아는 것이 핵심이 된다. 족한 줄 알고 머무를 때를 아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철학이요, 사리 판단의 근본 바탕이 된다. 우리 선인들은 ‘나는 만족할 줄 안다[吾唯知足]’를 생활의 철학으로 삼고 살았다. 우리는 모두 탐욕의 노예와 이기심의 종이 되지 말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즐거운 지족인[知足人]이 되자는 것이다.

옛날에 두 석수장이가 살고 있었다. 돌을 깎고 다듬는 일을 하면서 한 석공은 즐거운 듯 늘 흥얼거리며 망치에 장단을 맞추어

시냇물을 따라서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공위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가면서 일하였고, 다른 한 석공은 일하면서도 늘 상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면서 투덜거렸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했을까?

두말할 나위 없이 전자가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똑같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전자는 단순히 이를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돌을 깎는 일 그 자체를 자기 삶의 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 후자는 그것을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자 보수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만 여겼기 때문이다. 이 생각의 차이는 목적이나, 수단인 방편이나의 차이가 아닐까 한다.

‘지족자부^{知足者富}’라고 쓴 어느 명필가의 족자 한 폭이 생각난다. 네 글자로 된 한자 성어로 된 족자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이 사뭇 깊다. 이 사자성어의 의미는 자기의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행복하다는 뜻이다. 자신의 환경과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기반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때 그 분수가 가져다주는 삶의 차원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드높은 차원을 향해 역량을 쌓고 발판을 굳혀가면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지족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다.

산골에 살면서 요즘 새삼 고맙게 여기는 것은 시냇물 소리다. 눈이 드문 겨울이지만 그래도 물길이 마르지 않았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집을 나서 산길을 걷는다.

냇물이 흐른다. 잠시도 쉬지 않는다. 어디 냇물뿐이리. 이 존재는 그렇게 쉬지 않고 흐른다. 무상^{無常}이다. 눈으로 냇물을 바라보고 귀로 졸졸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세계가 죽어서 박제된 세계가 아닌,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세계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가슴이 설렌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덩어리를 인생의 대전제로 삼고 있다. 세상에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라고 하는 덩어리 속에 웅크리고 있다. 덩어리라고 해도 우주 차원에서 보면 검불도 안 되는 것인데 그 무게는 세상을 짓누를 만큼 무겁다. ‘나’가 일어나는 순간 모든 ‘너’가, 모든 적이 함께 별떡 일어난다. 그리고 번개보다 빠르게 모든 야망, 모든 시비, 모든 다툼이 일어난다. 곳곳이 긴장된 피아 전선이다. 그리고 입맛대로 기억한 과거가 따라붙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미

래가 시켜면 입을 벌린다. 아니, 죽음이라는 대사건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일상에서 지겹게 반복되는 자질구레한 갈등과 소모전, 모두가 '나'의 작품이요 파생물이다. 참으로 재앙이다.

시냇물과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며 길을 걷는다. 마음속으로 무상고공^{無常故空}을 염주 알 돌리듯 되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으므로 공^空하다……. 찰나에 변해가거늘 그 무엇을 '나'로 붙잡고 있을 수 있는가. 지옥에서 솟아난 미라 같던 아^我가 시냇물의 졸졸거림에 흐물흐물 풀어져 사라진다. 간혀 있던 마음이 열린다. 산길이 큰길과 만날 무렵엔 마음이 텅 비어서 고요하고 평화하다.

돌아가는 길, 이번에는 대원^{大願}의 염주 알을 돌린다. 겨울 가뭄에도 잘 견디고 있는 별거벗은 나무들, 무뚝뚝한 바위들, 흩어진 낙엽들과 나뭇가지들, 날아가는 겨울새들. 보이지는 않으나 저 숲 어딘가에 웅크리고 있을 고라니나 멧돼지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구의 주민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며 길을 걷는다.

시냇물이 불러주는 텅 빈 마음은 무심하고 서늘한 석간수다. 여기에 한 방울의 대원 기도가 떨어진다. 석간수가 성스러운 향

기를 품는다. 우리는 저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무한한 존재다. 그러나 또한 함께 어우러져야 진실로 축복된다. 그것이 존재의 운명이고 지복^{至福}이다. 존재여, 사랑이여, 참으로 신비하고 신비하여라.



Photo by Matt Walsh@Unsplash

불교총지종의 불사^{佛事}는 항상 참회서원으로 시작됩니다.

〈참회 서원〉

“이전에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무시로 탐·진·치에 연유하여서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이라 일체를 내가 이제 참회합니다.”

종단에서 불공 때 ‘참회’를 우선시하는 이유는 부처님께 올리는 불공이 자신의 반성에서 시작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참^懺은 ‘용서를 구한다’, ‘참는다’는 뜻이며,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청하여 고하는 것입니다.

회^悔는 ‘뉘우친다’,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후회하여 뉘우치는 것입니다.

참회는 과거로부터 지어온 잘못은 물론 현재 생활하는 가운데 지은 모든 허물과 잘못을 뉘우치고 절대 또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부처님 앞에 고^告하는 것입니다.

참회의 분류 중 사참^{事懺}은 염승, 독경, 예불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고, 이참^{理懺}은 마음으로 이치를 따져 몸과 마음의 번뇌를 끊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회 진언 懺悔 眞言

옴 살바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참회의 종류 중 포살^{布薩}은 보름과 그믐에 대중이 한 곳에 모여 계율을 공부하면서 각각의 조항마다 그대로 잘 지켰는지를 대중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며, 자자^{自恣}는 안거 마지막 날 대중들이 모여 자신의 잘못된 언행과 죄를 고백하고 꾸중 듣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총지종의 49일 불공은 1년 중 3차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녀를 위한 불공, 하반기에는 조상을 위한 불공을 지냅니다. 11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어지는 세 번째 불공은 ‘허물불공^{懺悔불공}’이라고 합니다. 허물불공은 ‘내 허물을 찾아 참회하고 바르게 고치는 불공’입니다. 이는 참회불공이라 부르지만, 종단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불공은 아닙니다.

49일 동안 행하는 참회불공에 들어갈 때는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진노력을 통하여 나를 제대로 보았을 때 나의 단점과 허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허물을 발견하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며, 바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바르게 고쳐 나갈 때 수행에는 커다란 진전이 찾아옵니다. 참회불공은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죄의 마음이 없어지며, 무명을 벗어나 지혜를 밝히는 것입니다.

3.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아이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고, 식사 시간에 밥을 다 먹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엄마가 더 먹고 싶은지 물어보자, 아이는 고개만 끄덕인다. 어떤 것이 더 먹고 싶은지 물어보면 손가락으로 반찬과 밥솥을 가리킨다.



● 원인

-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혼자 노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경우

- 아이가 자기 생각이나 행동에 확신이 없어 표현하기 힘든 경우
- 자존감이 낮거나 위축돼 의사 표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과거에 친구와 놀이 과정에서 좌절감을 경험했거나 성공 경험의 부재로 어려움을 갖게 된 경우
- 소극적인 성향과 새로운 것에 대한 낮가림이 심한 경우
- 요구사항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 지도방법

- 아이의 분명한 의사를 알아차린 후에 마음을 읽어 준다.
- 아이를 관찰하고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 아이가 원하는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놀이나 일상생활에서 성공하였을 때 긍정적으로 지지한다.
-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처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알맞게 표현하는 어휘와 문장을 지속해서 알려준다.
-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 준다.

● 기타

- 아이가 행동으로 의사 표현을 하면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 부모와 감정 관련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때 사용하는 표현 방법을 배워본다.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지전통등쟁이를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다.



사자춤 Lion 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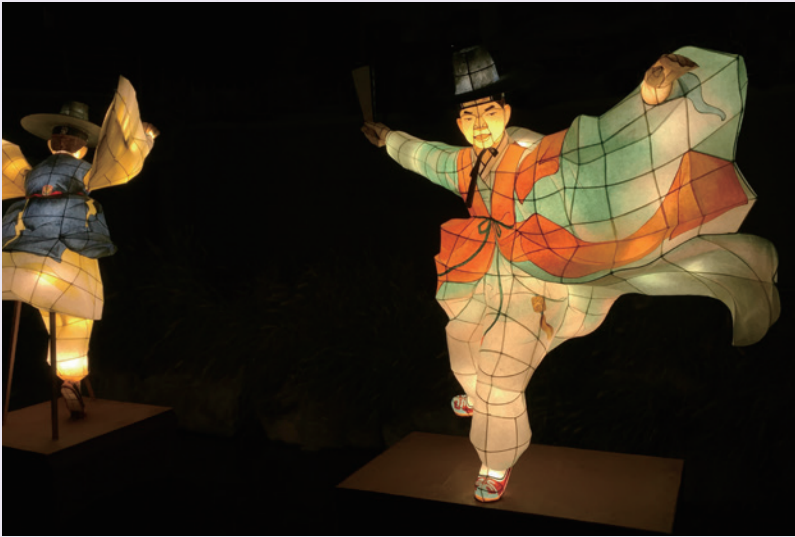
나비춤 Butterfly Dance

PART 4 전통등 축제 Traditional Lantern Festivals

- I. 풍물놀이 Pungmul-Nori
- II. 추억의 놀이 Traditional Games
- III. 동물이야기 Stories of Animals
- IV. 바다 속 풍경 Underwater Story
- V. 춤 Dances**
- VI. 서울빛초롱축제 Seoul Lantern Festival

춤

춤은 인류가 미^美를 추구하기 시작하며 생성된 가장 원시적인 예술 행위이다. 주로 음악이나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영적인 의식과 같은 특별한 행위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춤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개인의 의사를 몸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한량무 Dance of Noblemen (Hanryangmu)



검무 Sword Dance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지난 호 정답

불	교	총	지	종		무	아	지	경
똥		지		부	작	용		긋	
	생	신		세		지	고	지	순
칠		문	진		철	물		긋	
면			신	라	면		정		역
조	삼	모	사		피	사	체		지
	고		리	본			불	국	사
	초			부	연	설	명		지
한	려	수	도		구				
강			량		소	년	이	온	다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㉑		㉒		②	㉓		㉔		㉕
							③		
		④							
	⑤㉖					⑥㉗		㉘	
⑦			⑧	㉙					
⑨㉚		㉛							
				㉜		⑩㉝			
				⑪					㉞
⑫						⑬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가로 열쇠

- ① 양력 12월 24일, 정통밀교 총지종이 입교개종(立教開宗)한 날
- ② 불교의 우주관에서,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거대한 산의 꼭대기
- ③ 사슴의 형상을 따서 만든 한자 부수 '鹿'의 이름
- ④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날짜별로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종이를 묶어 놓은 것
- ⑤ 복소수 중에서 실수가 아닌 수
- ⑥ 모양이나 빛깔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 ⑦ 마소를 먹이려고 말려서 잘게 썬 짚이나 마른풀
- ⑧ 자동차 따위를 타고 매우 높은 속도로 달리면서 아슬아슬한 느낌을 즐기는 사람
- ⑨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일은 나중에 함
- ⑩ 일의 끝을 맺음. 한해의 ○○○ 잘 하세요!
- ⑪ 곤란한 문제 따위를 해결하는 실마리
- ⑫ 명상을 통해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함
- ⑬ 끼니 사이에 요기가 되도록 먹는 간단한 음식

세로 열쇠

- ㉑ 백색이며 투명도가 좋은, 주로 문에 바르는 질긴 종이
- ㉒ 일정한 수효 중 거의 모두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수
- ㉓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계 미국인 가족 이야기. 오스카 여우주연상
- 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 ㉕ 풀과 녹색은 같은 빛깔, 서로 처지나 부류가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함을 이르는 말
- ㉖ 총지종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멸하기 위해 매년 양력 11월 6일부터 49일간 정진하는 참회불공
- ㉗ 일에 시간과 힘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 정신이나 육체 따위가 지쳐서 고단함
- ㉘ 진공 유리관 속에 형광 물질과 안쪽 벽에 형광 도료를 칠한 방전등의 하나
- ㉙ 오색 비단 조각을 잇대어 만든 형겅으로 소매를 댄 어린이이용 저고리
- ㉚ 다가올 일을 미리 짐작하는 밝은 지혜
- ㉛ 낮가죽이 두꺼워 뽀뽀하고 부끄러움을 모름
- ㉜ 구들을 놓아 난방 장치를 한 방, 아랫목 뒷목
- ㉝ 소나 말을 기르는 곳, 외양간의 사투리
- ㉞ 여러 가지 재료를 알맞게 맞추어 적절한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안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항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도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심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법 공 남 혜 보명심 안한수 우 인
이수영 이인성 이해성 성화사신정회 자선화
정건호 정희련 진 여 총지화 한철수

(사)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일동(무순)

지회) 박차봉 강영철 박영중 조덕제 옥장운
윤병재 김갑태 박종한 김상길 김인규
황규철 이정식 김영옥 이금숙 여성숙
배여진 김정순 김행숙 서순옥 서금순
박영구 조장현 박태수 김일량 장승재
본회) 최우성 조현숙 최금란 박정미 정봉채
박봉수 전제우 김진문 윤종일 김석한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http://www.chongji.or.kr>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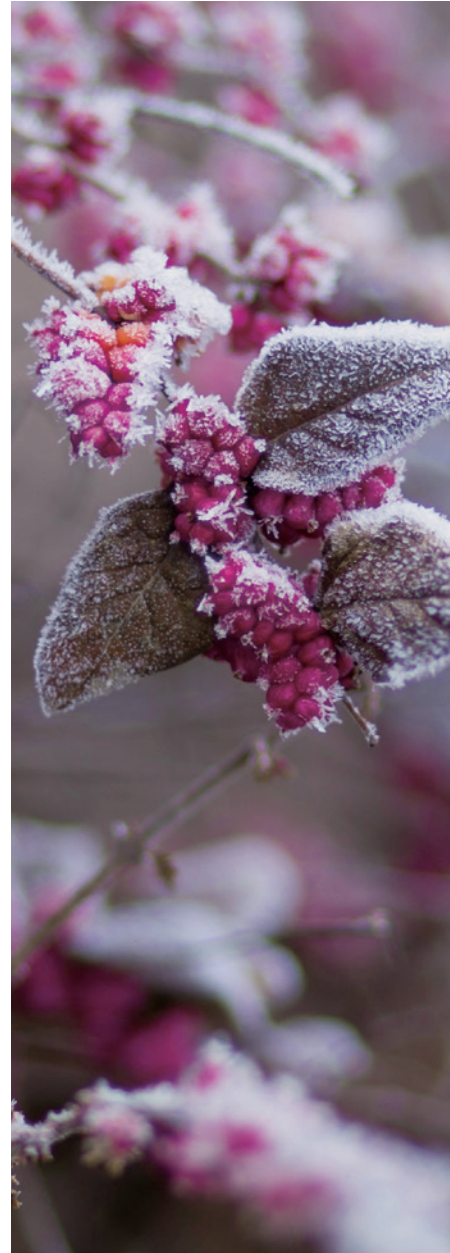


Photo by freestocks@Unsplash

위드다르마를 펴내는 동안 많은 일들이 생긴다. 어떤 독자는 위드다르마가 작은 깨달음과 성찰의 시간을 준다고 고마운 편지를 보내주셨다. 또 어떤 분들은 정성스레 가로세로 만다라세상의 정답지를 보내주시며 애정과 격려의 말씀도 함께 전해 주신다. 이럴 때마다 나는 독자들과 교감하며, 때론 지친 일상에서 다시 활자와 싸우는 힘을 얻는다.

이번 호를 만들면서는 집안에 초상이 있어서 바듯해진 일정에 다소 급한 마음이 들어간 것 같다. 천천히 다시 들여다보니 부족한 점이 눈에 들어온다.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아버님이 2년간 병석에 계시다가 영면에 드셨다. 어릴 때는 주변의 위로와 힘이 뭔지 잘 몰랐던 것 같다. 그저 장례 치루기에 바빴고 그 뒤로도 감사에 돌아볼 줄 몰랐다.

종조님께서 ‘중생의 생활’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큰 돌은 홍수를 만나면 역상을 하고 대인은 역경에 처하면 향상을 한다. 은혜는 평생으로 잊지 말고 원수는 일시라도 맺지 말라. 마음이 광대하면 행복 또한 크니라. 우리들은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고 또한 불만 중에 생활한다.”

어느덧 뉘엿뉘엿 한 해가 저문다.

발행일 총기 53(2024)년 12월 1일

발행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박재원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12월호



행복하라
더불어 행복하라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나
너의 행복 때문에
남을 불행에 빠뜨리지는 마라

- 환당 대종사 법어록 중에서 -